



# CMCA 60시간 영화제

##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8기 영상캠프 후기

☉ 박혜경 (CMCA 5기 졸업생)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에서는 기수마다 개인별 영상에서부터 조별 영상, 뉴스 제작 등 다양한 매체를 접하고 제작한다. 마지막 과제인 졸업 작품을 만들기 전에 3박 4일의 영상캠프를 하는데,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이 3박 4일의 시간으로 학생들은 실력이 향상될 뿐 아니라 함께 생활하고 작업하면서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고 더욱 돈독한 관계를 맺게 된다.

이번 영상캠프는 고신대학교 컴퓨터영상선교학과와 함께 60시간 영화제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이전과의 차별화 되었다. 크리스마스 직후, 지난 12월 26일부터 29일까지 부산 고신대학교에서 진행된 60시간 영화제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기준**: 제작물 중 반드시 들어가야 할 사항  
(대사, 인물(주인공), 소품)
- **주제**: 십자가
- **인물**: 최진영(남) 또는 최지영(여)
- **대사(말씀)**: 눅 23:34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 **소품**: (모든 형태의) 십자가

5분 이상 8분 이내의 영상물 제작으로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CMCA) 8기 학생과 고신대 컴퓨터영상선교학과 학생, 총 40명이 참석하였다.



고신대 부총장이신 이상규 교수님의 설교로 개최예배가 진행되었고 이어 이번 영상캠프의 주제설명 및 제작에 대한 유지는 PD님의 강의가 있었다. 주제인 십계명을 어떻게 해석하고 영상으로 나타낼것인지를 설명하고, 재미있기로 각 조의 주제 계명을 정했다. 쉽지 않은 주제였지만 각 조마다 주어진 주제에 대해 깊이 토론하고 기획안을 구성하여 촬영에 임했다.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는 영상실무와 더불어 기독교세계관을 교육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영상캠프 프로그램에도 세계관 강의가 빠지지 않는다. 이번 영상캠프에서는 최태연 교수님의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강의가 있었다.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 포스트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이들의 성향은 어떠한지 살펴보고, 그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비교하여 기독교인은 포스트모더니즘 사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강진구 교수님은 짧은 시간에 성경을 집중해서 읽고 2~3분내에 정리하는 새로운 목상방법을 소개하셨다. 이 방법은 시간이 부족할 때에도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청중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번 영상캠프에서 매일아침 실시되었다. 아침 목상이 끝나면 기미아 졸업생인 고 집사님이 준비해 주신 토스트로 아침을 먹었다.

기획안이 확정된 후, 셋째 날부터 조별로 촬영에 들어갔다. 장비들을 완전히 갖춘 조도 있었고, 촬영장소를 섭외하거나 세트장을 만든 조도 있었다. 저녁까지 분주하게 촬영을 마치고 부산의 명소 중 하나인 남포동에서 저녁을 먹었다. 많은 인원이 한 장소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낯선 부산의 변화가에서의 트릭축제와 저녁식사는 60시간 영화제의 긴장에서 잠시 벗어나 숨을 얻은 시간이었다. 식사 후 각 조는 다시 촬영하기도 하고, 촬영 테이프를 캡처하기도 하는 등 영상제작에 집중했다. 그렇게 마지막 날까지 촬영과 편집을 마치고 강평회가 시작되었다.

시사회는 강진구 교수님, 유지는 PD님, 장유진 PD님의 심사로 진행되었고, 고신대학교에서 주최, 후원하여 주신 덕에 시상식도 가졌다.

시사회와 시상식 후 폐회예배를 드림으로 영상캠프의 일정은 끝났다.

학생들은 캠프를 통해서 영상은 정직하게 수고한 만큼 드러난다는 것과 이 말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과 사명에 충분히 수고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해야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강진구 교수님은 폐회예배를 통해 영화는 상업성과 예술성을 강조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만드는 작품은 소통을 염두해야 할 것을 강조하셨다.

## 60시간 영화제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영상캠프 작품 소개

### 최우수상

- 계명 : 4계명
- 제목 : 이 부부의 사는 법
- 소속 :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 시놉시스



: 아내과 최진영(남편)은 신혼 6개월차 주말 부부이다. 주말밖에 만날 수 없는 애듯한 상황. 부부는 매일 새벽 전화하고 만날 날을 고대하며 만남을 소중히 이어간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부인인 지영은 바쁜 일정 중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주말조차 귀찮아져버린다. 일상에 치여 점점 만남의 의미를 잃어가는 지영. 남편은 관계가 소원해짐을 느끼며 서운해한다.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만남으로써 숨을 얻고 충전해오던 모습들은 사라지고, 의무적이고 냉랭한 일요일이 되어간다. 결국 식어버린 지영의 모습에 화가 난 남편. 둘의 다름은 거세어져 가는데...

### 우수상

- 계명 : 8계명
- 제목 : It's Mine
- 소속 :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 시놉시스



: 최진영(18, 남)은 만년 전교 꼴등이다. 집도 가난하고 가진 재능도 없다. 남들에 비해서 가진 것이 없는 자신의 삶이 항상 억울하다. 머리로 는 도둑질이 나쁘다는 것을 알지만, 마음으로는 자꾸만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남 부럽지 않게 한 번 살아보고 싶다. 어느 날때와



같이 오늘도 아버지의 지긋지긋한 잔소리를 피해서 집을 뛰쳐나왔다. 그런데 시장동 어두운 골목에서 누군가 자신을 부른다. 남자에게 다가서자 “다른 사람의 능력을 빼앗을 수 있는 반지”를 받게 되는데...

### 우수상

- **계명** : 3계명
- **제목** : 세상 어디에도 없는 교회 옴빠
- **소속** : 고신대
- **시놉시스**



: 교회에서 선망의 대상인 진영. 그는 찬양인도자이자 교회를 섬기는 회장으로서 자매들의 선망의 대상이다. 그는 자신이 앞에서 기타를 치며 인도할 때 교회의 모든 자매들이 자신을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는 것을 알고 신실한 모습과 성경말씀들로 그들을 어장관리 하는 모습을 보인다. 자매에게 기타를 가르쳐 준다며 슬쩍 스킨십을 하고 성경공부를 하자며 자매를 카페로 불러 성경공부는 뒷전,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고 작업을 건다. 작업이 끝나면 시간별로 자매들과 성경공부를 가장한 데이트를 약속한다. 그의 어장관리가 과연 지속될까?

### 관객상

- **계명** : 6계명
- **제목** : 가위
- **소속** :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 **시놉시스**



: 대학생인 최지영은 사교적이고 활발한 성격이어서 평소 친구들과 과도 원만하게 지내지만, 음식 먹는 것을 친구보다 더 좋아한다. 어느 날, 지영의 단짝 조금순이 지영의 과자, 음료수, 아이스크림을 뺏어 먹는다. 지영은 단짝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참았지만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점점 조금순이의 다른 행동들까지도 거슬리기 시작한다. 그러던 어느 날, 조금순이는 지영이의 라면을 뺏어 먹고, 지영은 마음 속으로 죽이고 싶다고 생각한다. 그 순간 조금순이는 지영이가 썰 싫어하는 행동인 면을 끊었고, 속으로 '먹다가 목에나 걸려서 뒤흔다' 했는데, 면이 조금순이의 목에 걸렸다. 자신의 생각이 현실이 되자 당황한 지영은 조금순이를 살리기 위해 응급조치를 하지만...

### 연기상

- **계명** : 5계명
- **제목** : 네 부모를 공경하라
- **소속** : 고신대
- **시놉시스**



: 함께 모여 서로의 부모님의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중국인인 장봉에게 중국에는 부모공경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본다. 장봉은 중국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한국과 다를 것이 없다고 말한다. 장봉의 이야기를 들던 차근이는 한국에는 심청이라는 효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 중국에도 부모공경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지 묻는다. 장봉은 우물쭈물하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된다.

### 말씀활용상

- **계명** : 1계명
- **제목** : O.M.G (Oh My GOD)
- **소속** : 고신대
- **시놉시스**



: 진영이는 카라팬이다. 일요일 아침, 실컷 자고난 진영은 눈을 비비며 모자를 쓰고 츄리닝을 입은 채로 책상 한구석에 놓여있던 성경책을 들고 교회로 향한다. 졸고 있던 진영은 진동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깬다. 카라 콘서트 예매 시작 한 시간 전이라는 알람메세지가 뜬다. 진영은 예매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리를 뜬다. 급하게 집에 들어선 진영은 경건한 마음으로 노트북 앞에 앉아 초 긴장상태로 크게 심호흡을 한다. 티켓팅에 성공한 진영은 펄쩍 뛰어오르며 기뻐한다. 그때 친구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게 되고 교회 친구초청예매 일정과 콘서트가 겹침을 알게 된다. 하지만 카라 콘서트에 가기 위한 달 동안 준비했던 상황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결국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 소품활용상

- **계명** : 9계명
- **제목** : 상처
- **소속** :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 **시놉시스**



: 민경과 철수는 오랜 연인이다. 민경은 우연히 철수와 지영의 닮은 모습을 보게 되고 오해를 하게 된다. 질투심에 사로잡힌 민경은 주위사람들에게 지영은 모함하는 말들을 하고, 이로 인해 힘들어하던 지영은 급격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데...

※ 본 영상은 본 단체 기독교세계관학술훈영회 홈페이지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